

소외 노인들의 일일 며느리된 이주여성들

“외로움 서로 나누니 한가위가 훈훈해요”



추석을 나흘 앞둔 1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소태동 이일성로원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주여성이 40여명이 소외된 노인시설을 찾았다. 모국을 떠나 타국살이의 외로움을 온몸으로 겪었던 이주여성들이 노인들 도우미로 나선 것이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 이름은 천 마이 (24·베트남)예요.”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한국말도 잘하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고마워.”

경계난으로 인해 온정의 손길이 뚝 끊어졌던 노인시설의 분위기가 금새 환해졌다. 적극 해했던 노인들도 이날만큼은 마음껏 웃었다.

노인들과 이주여성들은 100m 남짓 강당에 둘러앉아 그룹별로 송편을 빙기 시작했다.

“할머니, 송편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요.” “송편 반죽을 너무 많이 뜯었잖아. 조금만 뜯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이주여성들의 송편은 옆구리가 터지기도 하고, 크기도 들쑥날쑥했지만 송편만들기에 금방 빠져들었다.

마리안(23·필리핀)씨는 “할머니들에게 예쁘고 맛있는 송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어젯 밤에 시어머니와 함께 미리 연습했다”며 “고향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뻔 했다”고 말했다.

송편을 빙기 난 후 이주여성들은 노인들의 도움으로 한복을 직접 입어보았다. 입기 힘든 한복이지만 고운 색감과 단아한 옷매무새에

서로 탄성을 질렀다. 노인들은 일일며느리인

10일 오전 노인요양시설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 이일성로원을 찾은 이주여성 40여명이 노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kwangju.co.kr

이주여성의 한복 옷고름부터 버선까지 꼼꼼히 살펴주었다.

조인애(92)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한복을 직접 입혀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해줬는데 이제서야 한을 풀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행사는 공연 등 레크레이션 시간. 처음 만남의 낯설은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국악공연을 지켜보았다.

나스나루미(39·일본)씨는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데 할머니들과 소중한 인연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추석 연휴 결식아동 4,300명 급식 지원

광주위생매립장·상무소각장 등 환경시설 주변

2012년까지 수목원·생태숲 만든다

광주시와 5개 구는 추석 연휴기간 인 13일부터 사흘간 4천300여명의 결식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중 자치구가 점심을 제공한 아동 7천149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급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와 함께 추석을 보내거나 고향과 친척집을 방문하는 2천831명을 제외한 4천318명(60.4%)은 연휴에도 급식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각자구는 기준에 도시락을 제공받는 2천112명에게도 아동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각 가정으로 배달기로 했다.

일반음식점 이용자 1천960명에게는 종전처럼 식권을 배부하되 지정식당들이 연휴기간에 교대로 문을 열도록 하고 식당별 휴무일을 미리 안내한다. 광산구 농촌지역 결식아동 246명에게는 인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쌀, 반찬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식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급식업체 직원들의 귀성·휴무로 인해 아동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역위생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상무소각장 등 광주지역 환경기초시설과 그 주변지역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폐기물 제로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이를 3대 환경기초시설과 그 주변에 대규모 수목원과 산소공급림, 생태숲, 친환경 체험·교육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매립장 주변 직접 영향권 부지(10ha)와 진입로 주변 녹밭 및 저수지(20ha)에는 180억 원을 투자, 생태숲과 식물원, 꽃정원, 수목종 증식장, 전시

우선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부지 58만4천㎡에는 100억 원을 들어 생태연못과 실개천, 생태탐방로, 생태관찰테크, 야생화단지, 철쭉군락지 등 친환경 체험시설과 ‘기후변화 교육·홍보관’을 건립, 시민휴식은 물론 환경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매립장 주변 직접 영향권 부지(10ha)와 진입로 주변 녹밭 및 저수지(20ha)에는 180억 원을 투자, 생태숲과 식물원, 꽃정원, 수목종 증식장, 전시

시설 등을 갖춘 수목원을 조성한다.

이울리 매립장 주변 임야 150ha에는 산림청 사업과 연계해 140억 원을 들어 생태관찰로와 각종 휴양시설 등을 갖춘 ‘산림서비스립’을 조성, 수목원과 함께 전국 단위의 ‘환경 투어 가든’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상무지구 광주시청 뒷편 제1하수처리장과 인근 지역 4만5천㎡에는 14억 원을 투입, 친환경적인 도시공원형 생태숲과 정자, 분수 등 시민쉼터를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 3월에 이전할 위생처리장 부지와 2~3년 뒤 이전이 예상되는 음식물사료화 시설 부지에도 체육시설과 다양한 생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무소각장과 그 주변에도 체육시설 증설과 다양한 수목을 심어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12억 원을 들어 주민협의체가 요청한 ‘보행자 전용도로 수목식재’ 등 상무지구 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생태공원·자연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광주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과제를 의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GS칼텍스 정보유출’ 500명 손배소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천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줄소송’이 전망된다.

10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가 유출된 임모 씨 등 500명이 GS칼텍스 및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 씨

등은 각각 100만원 씩 총 5억원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인철 변호사는 조만간 500명에 대한 손해 소송을 또 낼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 지하철 상무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추석을 맞아 장흥·완도·진도군 등 전남 3개 군과 합동으로 11일부터 이를간 지하철 상무역에서 ‘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연다.

올해로 3년째 열리는 직거래장터에서는 매생이·꼬막·표고·고시래기·기·기조·도자리 등 장흥군의 농수산물을 맘카페·민박·여관 등 대체식품을 연휴 첫 날인 13일 오전까

완도군의 수산물, 검정쌀·오색미·홍주 등 진도군의 농산물이 시중가의 80%에 판매된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보증하는 질 좋은 상품이 많아 시민들의 신뢰도와 구매율이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사업 개발팀(062-604-8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등은 각각 100만원 씩 총 5억원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인철 변호사는 조만간 500명에 대한 손해 소송을 또 낼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자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